

문방위 '재탕' 자료로 연일 '파행 국감'

자료제출 거부 등 곳곳서 문제...19일로 연기

교과위도 여야 팽팽히 맞서 이틀째 중단 선언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감은 증인 채택과 피감기관의 '재탕' 자료 제출로 인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 또 다시 중단되는 등 이틀째 파행을 거듭했다. 상시대 사태와 관련한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 채택과 후원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조정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증인에 김문기 전 이사장이 포함돼 있고 필요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을 부르는 것을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해놓고 파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신뢰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변제일 교과위원장은 회의시작 1시간 10분여 만인 오전 11시 10분께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재탕 업무보고로 파행을 겪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독립영화 제작심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 위원장에 대해 "업무보고를 할 자격도 없다"며 질타했다.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은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국감은 곧 재개됐으나 이번에는 '재탕' 인사말이 도마에 올랐다.

조 위원장이 지난 6월에 열린 임시국회 때 인사말을 그대로 사용하려다 야당의원들에게 들킨 것이다. 이날 사전에 여야 의원들에게 배포된 인사말 표지에는 '2010년 제 291회 임시국회'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 역시 석달 전인 6월21일로 돼 있었다.

이를 발견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이를 바로 간사인 서상기 의원에게 알렸다.

이때 서 의원은 "표지는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내용을 봤더니 임

시국회 때 자료와 거의 내용이 똑같다"며 "조 위원장의 진퇴 문제로 매번 문방위가 회의할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 준비마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한심하게 짝이 없다. 이것은 인사말이 아니라 시나리오"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아주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조차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조씨의 실상을 보여준 것 아닌가"라며 가세했다.

게다가 영진위의 자료 제출 거부도 문제가 되면서 정병국 문방위원장은 "이런 정신 자세로 어떻게 국감을 받겠냐"며 조 위원장을 질책했다.

결국, 여야 간사는 영진위가 국감을 받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는 19일 다시 영진위에 대한 국감을 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광주지역 어린이집 질적 수준 전국 최고"

원희목 의원

광주지역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보육시설의 평가 인증률은 47.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비해 광주는 민간 어린이집 974개 중 70.4%인 686개가 인증을 받아 전국에서 질 좋은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68.9%), 강원(65.4%), 전북(63.1%), 전남(61.3%) 순이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9710개의 민간 어린이집 중 인증을 받은 시설은 32.4%인 3147개에 불과했으며 충남(39.9%),

대구(44.5%), 경남(44.8%) 등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증률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북 영천이 94.4%(34/36)의 인증률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광주 북구는 82.3%(223/271)의 인증률로 전국 4위, 화순은 79.4%(54/68)로 전국 10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60.1%(221/368)의 인증률로, 전남에서는 무안군이 28.6%(8/28)로 각각 인증률이 가장 낮았다.

원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 인증률을 높이고 지역간 보육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에 똑같이 국고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평가인증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문예진흥기금 지원실적 하위권"

장병완 의원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인 광주·전남지역이 문예진흥기금 지원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 문화적 소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문예진흥기금 지역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최근 3년간 전체 문예진흥기금 집행액 대비 2.0%(30억2000만원)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기록했으며, 전남은 2.3%(35억4000만원)로 9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에 지원된 문예진

흥기금은 798억5600만원으로 전체의 52.4%나 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적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수월성과 창조성의 차대만을 적용하는 것은 이른바 어린이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 하라는 것과 같다"며 "문화·예술은 예술인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고루 누려야 할 권리이고, 문예진흥기금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적금금 감소에 따른 고수익을 얻기 위해 문예진흥기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최소 255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출산장려금 200배차... 들쭉는 광주 동구 유리"

심재철 의원

들쭉 자라는 광주 동구, 경북 문경시는 1인당 200만원의 혜택을 줘 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완도군 130만원, 서울 강남구, 인천 옹진군, 충북 보은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이 100만원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195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급액이 최대 200배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들쭉 자녀 출산시 장려금을 주는

99개 지자체 가운데 광주 동구, 경북 문경시는 1인당 200만원의 혜택을 줘 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완도군 130만원, 서울 강남구, 인천 옹진군, 충북 보은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이 100만원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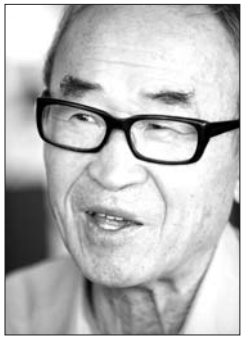
셋째를 낳을 때에는 서울 강남구의 장려금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여수시가 33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남 예산군과 전북 장수군, 부안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남해군은 300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력 후보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수상할까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일이 7일 오후 8시(현지 시간 오후 1시)로 확정된 가운데 매년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돼온 고은(77·사진) 시인이 올해는 과연 수상의 영예를 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노벨문학상은 아프리카 출신 여류시인 아시아 제바르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AFP통신이 5일 전망했다.

통신은 그간 노벨문학상이 유럽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여성 수상자가 별로 나오지 않았으며, 시인이 홀대받았고, 스웨덴 한림원이 정치성을 띤 작품을 대체로 선호했다는 역대 통계를 볼 때 이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올해 노벨문학상에는 제바르 말고도 고은 시인과 아도니스(시리아), 토머스 트란스트로메르(스웨덴) 등 시인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한편, 고은 시인의 '만인보'를 주제로 비엔날레를 열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재단측은 고은 시인의 수상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단은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확정될 경우 '고은 시인의 날'을 정해, 작가 초청 강연 등 축하 행사를 열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국감 인물

조영택 의원

'순둥이'에서 '독사'로... 피감기관 맹공격



조영택 의원(광주 서 갑)이 국회 정부위원회의 민주당 공격수로 맹활약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정적질의를 치중하면서 관료 출신의 은화환(?)을 보여왔던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처부를 날같이 지적하며 날카롭고 독해진 모습이다.

우선 조 의원은 지난 4일 자산관리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직위 채용에서 학교, 학과, 연령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즉각적인 시정 요구와 함께 공공기관에서의 각종 차별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아이폰 단말기 A/S 정책의 문제점까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규 마련을 요구, 현장성 있는 국정감사 사례라는 호응을 받았다.

조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실 불법사찰 10대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주요 정책 및 조정에서 국무총리실이 배제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 심각한 상

황이라고 각을 세웠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조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4대강 검증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쟁점과 이슈가 적은 정부위에서 조 의원이 민주당의 공격수로 맹활약을 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며 "당내에서는 관료 출신의 '순둥이'가 야당 생활 2년을 거치면서 '독사'가 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벨화학상' 팔라듐촉매 개발 美 헤크 등 3명

올해 노벨화학상은 금속 촉매를 이용해 복잡한 유기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신약 개발 등에 기여한 미국의 리처드 F. 헤크(79)와 일본의 네기시 에이치(75), 스텝키 아키라(80) 등 3명에게 돌아갔다.

과학자가 유기합성 분야에서 팔라듐 촉매를 이용해 복잡한 유기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는 길을 연 업적으로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이 개발한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교차짝지움(cross coupling) 반응은 현대 화학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

고 있다며 이들의 연구성과는 인류가 신약과 플라스틱 같은 혁명적 소재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과학자에게는 1천만 스웨덴 크로네(약 16억7천만 원)의 상금이 3분의 1씩 수여되며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연환스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지역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은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50m

갯마을
갯마을
갯마을

해태제과
해태제과
해태제과

김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

1일 30~40분 운동으로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가격 30,000원 (배송비 무료)

발목펌프운동은 혈액순환장애에서 시작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결시켜 준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은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이 발목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 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데서 온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일본인이 최초로 개발한 이 기구는 악을 전혀 먹지 않고 꾸준한 발목펌프운동만으로 각종 질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예방 할 수 있으므로 평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운동봉을 빌려 드리오니 실제 체험을 해 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입하시고 효과없으면 반납하세요.

운동방법

1. 누워서 운동봉 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2. 한쪽 다리를 30cm이상 위로 올렸다 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번갈아가 좌, 우 교대로 한다.
3. 아상과 같이 처음에는 하루에

500회 1,000회를 차차 횟수를 늘려 1일 3,000회 아침 저녁 2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한다.

상담 전화 062-672-2002 / H.P. 010-7510-2000

광주 남구 진월동 258-1 2층 제일강원(국민은행 건너편 단컨도너스 2층)

온라인계좌 • 광주은행 125-121-002455 • 농협 601154-52-335334 • 예금주: 서영섭

조선이공대학

2010년 유망신성학과

프랜차이즈 서비스창업교

우리와 특징 5가지

1. 창업실패의 85%는 1년 이하의 준비기간
2. 2년 간의 실무적인 창업준비로 100% 사업성공
3.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점장,대표 특강
4. 창업스쿨, 알짜상권분석, 커피바리스타 등 실무중심 수업
5. 월수익 1000만원 이상 업소의 성공요인 분석

졸업후 직원 ▶ 매니저 ▶ 점장 ▶ 창업까지

학과카페: NAVER 카페 bxbx

재학중 5가지 자격증취득 (100%)

외식산업관리사 서비스경영관리사 커피바리스타 유통경영관리사 고객서비스수료증

일학의 학과실 (062) 230-8410
cafe.naver.com/bxbx